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288.08	↑ 코스닥	1144.33
	(+338.41)		(+45.97)
↑ 금리 (미국재 3년)	3.189	↓ 환율 (원/달러)	1441.70
	(+0.037)		(-22.60)

‘워시쇼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급락
03



메모리 가격 올해도 천정부지 삼성·SK, 역대급 실적 다시 쓴다

작년 PC 출하량 예상보다 많아져 ‘공급부족’ D램값, 90% 상승 전망 HBM4 주도권, 실적의 핵심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확산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사의 영업이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HBM4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여부가 향후 실적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양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 통해 1분기 기준 D램 평균 가격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수치였던 55~60%에서 90~9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낸드 또한 33~38%에서 55~60%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PC 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PC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요 PC 주문자위탁생산업체(OEM)들은 메모리 재고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서버용 D램 또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분기 서버용 D램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전분기 대비 90% 올라분기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LPDDR5X 등 저전력 D램의 1분기 계약 가격 또한 전 분기 대비 90%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낸드 역시 메모리사들이 D램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기업용 솔

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가격은 1분기 53~5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 전 제품 가격은 55~6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도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의 예상치를 각각 245조원, 179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온 HBM 사업 부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SK하이닉스 또한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모습.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5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뉴시스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빌딩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본격 사업 단계에 진입한다.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00억원을 투입해 성수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5일 결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시, 세부 개발계획 내일 고시 공공기여 6000억 투입 교통 개선 지역기반 스타트업 성장 지원 거점

이번 결정고시는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9년간 레미콘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불편 등 민원과 사업추진 중 부침이 지속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레미콘공장 철거 후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서울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원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면적 5만3000㎡ 규모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투입,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2300억원을 활용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복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신설 등 지역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숲과 부지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규모 녹지와 광장이 들어서 서울숲의 녹지축이 부지가 확장되게끔 조성된다.

레미콘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연내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회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른바 오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이기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 서울 전역의 도시 혁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정권 ‘안정론’ vs ‘심판론’... 여야 대격돌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李 정부 2년차, 국정평가의 지표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사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당이 소속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경선 등을 거쳐 공천돼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5월29일~30일에 치러진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에 펼쳐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2년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정권안정론’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사법·행정 독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가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를 문제 삼으며 ‘정권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주자는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의 현역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칭찬한 바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일 성동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곧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이 3연임이자,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오 시장은 당내 ‘윤여계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우경화’된 국민의힘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로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6선의 추미애 의원, 3선 권철승 의원, 정청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몇 번의 대형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약세를 보인 경기도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중도 개혁 이미지의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에서 김교흥 의원(3선)과 정일영 의원(재선)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합당 제안에 與 내홍 지속...친명 “졸속 합당 중단하라” 서명운동 /사진 뉴시스
▲국힘, 與 교섭단체 연설에 “민생 외면 자화자찬...李정부 모래성 지키기 급급”

▲與 “5일 본회의 강력 요청...개혁법안 최소 2개 처리”
▲이준석, 국힘 소장파 강연서 “장동혁, 경쟁자 배고 통합할 것”

▲방미길 오른 조현 “루비오와 팩트시트 빠른 이행 위해 협의할 것”
▲정청래 “李 ‘코스피 5000 공약’ 비웃던 분들 지금 표정 궁금”